

14세기 고려시대 목선 '안좌선' 선체 복원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선체 39편 건조 처리 착수 완공땀 당시 선박 구조·역사 규명 중요한 단서 기대

고려시대 선박 '안좌선' 선체 건조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안좌선'은 지난 2005년 전남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 앞바다에서 현지 주민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발굴 당시 소량의 도자기와 원통목 등도 인양됐다. 탄소연대측정과 연륜연대 측정 결과 14세기 후반 고려시대 선박으로 밝혀졌다.

이번 안좌선이 복원되면 고려시대 선박의 구조뿐 아니라 선박의 역사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지난 12일부터 '안좌선'의 선체 39편(조각)에 대해 건조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9편은 전체 선박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로 가장 큰 것은 길이 10m, 폭 54cm, 두께 24cm 정도다. 반면 가장 작은 편은 길이 1m 30cm, 폭 40cm, 두께 17cm 정도다.

선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소금 성분을 제거하고 약품을 녹인 수조 안에 선체편(조각)을 담가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안좌선은 지난 2006년부터 선체 조각 안쪽을 채우고 있는 소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민물에 담가 두는 탈염처리를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 시작한 치수안정화처리 작업도 올해 끝냈다.



지난 2005년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 앞바다에서 발굴된 '안좌선'은 고려시대 선박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선박이다. 사진은 안좌선 발굴 당시 모습.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선체편마다 약 2~3년 건조 시간이 필요한데 안좌선은 39편으로 개수가 많아 올해는 일단 9편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건조 작업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조실에서 진행되며 선체편에는 비닐을 덮어 급격한 건조를 방지한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건조 후 복원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는 전시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전시 중인 완도선(11~12세기), 달리도선(14세기)과 함께 선박의 발달사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 이한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문집 나와 담양 출신 감사원장·국무총리 역임 저서 '한국의 영토'서 독도는 우리땅 갈파

기당(箕堂) 이한기(李漢基·1917~1995) 박사는 우리나라 국제법학의 개척자다. 또한 시인 김광균·구상, 소설가 정비서 등과 동인활동을 펼쳤던 문인이기도 했다. 저서 '한국의 영토'를 통해서 독도뿐 아니라 간도까지 한국의 땅임을 국제법적으로 갈파해냈다.



공을 세우셨다.' ('이상우 교수의 추모비문 중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문집 발간 기념사에서 "48일의 총리 재임기간 전두환 정권은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러다가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듣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갔다"고 회고했다.

최근 이한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문집(문학공원·사진)이 발간됐다.

기당 탄생 100주년 기념문집 발간위원회가 펴낸 책에는 기당의 학문과 인생, 감사원장과 국무총리 시절, 기당과 문학 등 다양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기당은 1917년 담양군 창평면 장항리에 태어났다. 일본 동경제국대학교 법문학부를 거쳐 이후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과대학장, 사법대학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법대에서 30년 간 국제법을 강의하면서 동양들을 길러냈고 북으로 독도를 지켜냈다. 1987년 명동성당농성에서 6·10 항쟁으로 이어지는 격동기에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명동성당의 공권력 투입과 계엄령 선포를 단호히 반대해 6·29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선생님은 또한 학문을 통한 나라 사랑을 후학들에게 가르치면서 독도와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일에도 진력하였으며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던 때에 몸소 감사원장과 국무총리 직을 맡아 한국 민주화의 한 이정표인 6·29선언을 이끌어내는 불후의

사학자 서정석 교수는 1987년 격변기에 온건파 이한기 총리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때로는 극우적인 수구정권 내의 온건파가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책에는 이 박사의 가계에 대한 글도 언급돼 있다. 고조부 이최선, 증조부 이승학, 조부 이광수 3대가 모두 저명한 성리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의병활동을 펼쳤다. 증조부 이승학은 건국포장, 조부 이광수는 건국훈장 애족장에 선출됐다. 또한 전남대 문리대 초대학장을 지낸 사학자 이혁 교수는 기당의 선친으로 지역 후학양성에 기여했다.

기당의 차남 이종길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부강한 국가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늘 말씀하시던 선친의 말씀이 떠오른다"며 기념문집 발간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21일 광주문예회관에서 판소리, 사물놀이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펼친다.

늦가을의 정취 '소리여행'에 빠져보세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21일 문예회관서 정기연주회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118번째 정기연주회 '소리여행'을 연다. 김광복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소리꾼 김산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국악관현악과 생활협연, 판소리, 사물놀이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다.

다. 10년 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 공연에서 앙코르 곡으로 연주해 화제가 된 곡이다.

이어 중요무형문화재 20호 대금정악 이수자인 신선민의 생활 협연으로 '풍향'을 무대에 올린다. 또 김광복이 편곡한 경기민요 '장부타령'을 최은호의 목소리로 듣는다. 장부굿 판에서 불리는 '장부타령'은 광대신인 장부를 불러 운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연의 후반부에서는 소리꾼 주소연·김다은·박진선이 '흥보가' 중 '박타령'과 '육자배기'를 부르며 흥을 돋운다. '육자배기'는 전남지역의 논매기에서 나무꾼들의 소리로 불렸던 향토민요로 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남도민요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마지막은 사물놀이 협연곡인 '신모듬'으로 장식한다. 최상진(쟁가리), 김장훈(징), 장동준(장구), 이승훈(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는 '신모듬' 중 셋째거리 '놀이'를 연주한다. 충청·전라·경상 3도의 흥겨운 타악 가락이 특징인 이 곡은 사물놀이로 정점에 달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3. /백희준 기자 bhj@

광주시립미술관 전승보 관장 20일 '미술관 아카데미'서 '과연 그것이 미술일까' 주제 강연

'서양근현대미술사'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미술이론전문강좌 '미술관 아카데미' 7번째 강의가 오는 20일 오후 3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강의에서 전승보(사진)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은 '과연 그것이 미술일까?'를 주제로 강연한다. 전 관장은 예술가가 창작한 작품이 어떻게 미술로써 의미를 가지는지 미술전문가의 입장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전 관장이 번역한 신시아 프리랜드의 '과연 그것이 미술일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술작품이 왜 예술이 될 수 있는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자와 전문가의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문의 062-613-71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강진 출신 김미승 시인, 중국 고서 '산해경' 동화로 출간

'산해경'은 중국 고대에 나온 책으로 신화, 지리, 동물, 식물, 종교, 민속 등 다양한 방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와 제작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한나라의 유향, 유희 부자가 정리해 발간한 총 18권의 '산해경'이 최초 판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는 달피골이었다. 한바탕 모험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사는 곳,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라는 현수염 산신령의 가르침이 새삼 다가온다.

'산해경'을 동화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김미승 시인이 최근에 펴낸 '잊혀진 신들을 찾아서 산해경-강지와 신비한 사람들'(마음어임)은 동화에 신화와 지리를 가미한 작품이다. 저자는 서양의 사고 체계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동양의 넓은 사고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뒀다.

할아버지를 위해 모험에 나선 강지는 머리가 세 개인 삼수족, 인어 사람인 저인족, 여신 서양모 등을 만나면서 동양 신화 속 색다른 인물을 소개한다. 산해경 속의 이상한 마을, 무서운 괴물, 기괴한 사람들, 정체 모를 신을 만나며 강치가 모험한 곳은 미지의 세상이 아닌 강치가

며 조화롭게 살라는 현수염 산신령의 가르침이 새삼 다가온다.

저자는 "신화는 오래된 것이지만 읽을수록 새롭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목표 달성을 못 해서 실망한다"며 "그럴 때 신화를 보면 길이 보인다. 도저히 못해낼 것 같은 일도,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꿈도 만만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 출신의 김미승 시인은 시집 '억이하는 시간이 환하다', 청소년 소설 '세상에 없는 아이'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